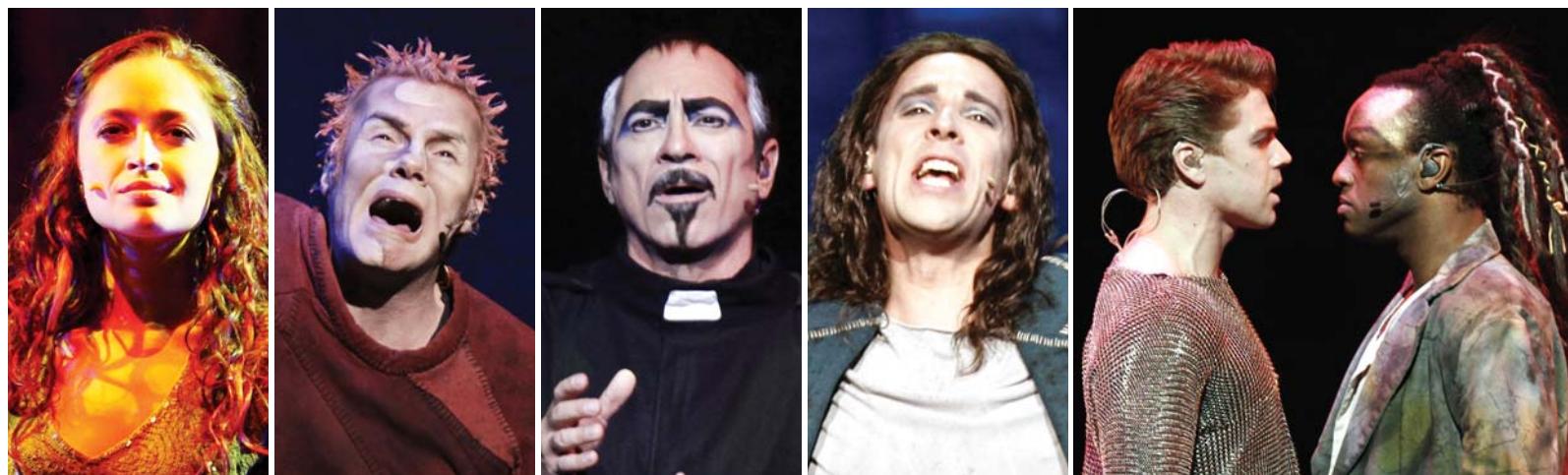


Notre Dame De Paris

'노트르담 드 파리'

3월 8일~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오리지널 감동을 만난다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since 1952

지난 2005년 국내에 첫 선을 보였던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당시 미국과 영국산(產) 뮤지컬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루어진 '송스루'(Song-through) 뮤지컬인 '노트르담 드 파리'는 가수와 무용수의 역할이 분리된 독특한 스타일의 뮤지컬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30여곡에 이르는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와 아크로바틱, 현대 무용, 비보이 등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춤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006년 한 차례 더 내한공연을 가졌던 '노트르담 드 파리'는 2007년 한국에 버전으로 공연됐고, 괴이모도역의 윤형렬과 그랑그와르역의 박은태, 에스메랄다

역의 바다 등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이 광주를 찾는다. 3월 8일~11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워고의 원작 소설로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종지기 괴이모도역의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노트르담 드 파리'는 1998년 파리에서 초연한 프랑스 대표 뮤지컬이다.

2006년 이후 처음 열리는 오리지널 팀 내한공연인 이번 무대는 아시아

투어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어 버전'이다. 오리지널 스텝인 연출가 질 마우스와 예술감독 웨인폭스가 참여했으며 영어 버전은 '타이타닉' 주제곡의 'My heart will go on'을 작사한 월 제닝스가 맡았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압권은 세련된 멜로디의 뮤지컬 넘버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OST가 1200만장 팔려나갔다. 특히 아름다운 그녀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세명의 남자가 부르는 노래로 44주간 프랑스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한 '아름답다', 뮤지컬의 막을 여는 그랑그와르의 '대성당의 시대'

는 놓치기 아까운 명곡들이다.

노래 없이 '춤'만 주는 무용수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다. '미치광이 시대' 등의 노래가 흐를 때 무대 위에서 파워풀한 춤을 선보이는 무용수들은 작품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이다. 괴이모도 역으로만 13년째 무대에 오르며 500번 넘게 연기해온 그가 마지막에 죽은 에스메랄다를 부여잡고 부르는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는 관객들을 전율케한다. 티켓 가격 16만 5000원~6만 000원. 문의 062-20-0541,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국악원, 국악동호인 모임 현황 조사

국립국악원은 국악 동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위해 일반인 국악 동아리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후에는 진도 남도국악원 등 4개 국악원이 국악 동아리의 연주 장소를 제공하고 국립국악원 단원 및 원로 사범의 강습 기회를 주는 등 일반인의 국악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국악기 연

주, 판소리와 민요 등 국악 성악, 궁중 무용과 민속 무용 등의 동호인 모임이다.

참가를 원하는 동아리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go.kr)에서 조사표를 내려받아 동아리 소개와 활동 내용 등을 적은 뒤 이메일(venus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3월 18일이다. 문의 02-580-30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EQ가 쑥쑥! 재밌는 어린이 클래식

'통통 클래식 놀이터' 23~25일 금호아트홀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부모들은 많다. 하지 만 아이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어 엄마들은 늘 고민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은 봄방학을 맞아 오는 23~25일 금호아트홀에서 어린이를 위한 '통통 클래식 놀이터'를 6차례 공연한다.

10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이번 공연은 특히 'EQ발달'을 돋는 꾹 편성과 레크레이션을 결합한 구성

이 특징이다. 어린이들이 재밌게 클래식을 접하면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젤로에 박효신(네덜란드 마스트리트 음대 석사 졸)씨, 클라리넷에 박소희씨(독일 부퍼탈 국립음대 석사 졸) 등 해외 유학과 젊은 연주자들이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K622의 2악장' 오웬바흐의 '강강' 등 영화 등에 배경으로 나오는 친숙한 곡이다.

또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



기행진곡', 나폴리 민요 '푸니콜리 푸니콜라' 등 새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경쾌한 곡이 곁들여졌다.

프로그램은 25분의 클래식 명곡 연주와 20분의 음악퀴즈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짜여졌다. 관람료 7000원.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와 MOU

광주문화재단이 15일 백남준아트센터와 미디어아트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날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정식에는 광주문화재단 노성대 대표이사와 박선정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콘텐츠 개발 및 공동 협력 ▲미디어아트 관련 공동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전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교환 ▲상호 활동 및 사업 홍보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고 백남준 선생의 이름을 내건 세계 유일의 비디오 아트 박물관이다. 지난 2008년 10월에 개관 이후 백남준 선생의 작품 세계에 대한 밀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상설전·기획전 및 출판기획, 시민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아트 특화를 위해 지난해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미디어큐브338' 갤러리를 개관했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운영 중이다. 문의 062-670-7432. /오광록기자 kroh@

22nd Wine & Dine

Chateau Pavie '100점 만점 와인' dinner

황홀경을 부르는 최고의 와인.
한국 최초! 샤또 빠비 오너와 함께하는 격조 높은 와인 메이커스 디너에
와인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3. 2(fri) 19:30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문의 (062) 525-2111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복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